

# ‘고향기부제 전국 시 단위 1위’ 나주시, 답례품 확대

농수축산물·체험·관광 서비스 다채  
현금·고가 전자 지급수단 등 제외  
기부자 만족도 향상 답례품 발굴  
선정위 심사 1년 공급 자격 제공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전국 시 단위 지자체 1위 성과를 거둔 나주시가 올해도 다채로운 답례품 개발로 기부자 마음 사로잡기에 나선다.

17일 나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일까지 공고를 하고 같은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신청 서류를 접수 받는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업체다.

모집 품목은 나주의 특색을 담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비롯해 각종 가공품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

광 서비스까지 매우 다양하다.

현금과 고가의 귀금속, 전자 지급수단 등은 답례품에서 제외된다.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방식은 정량평가(60%)와 정성평가(40%)로 나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업체의 사업 안정성, 지역 자원 활용도, 제품의 우수성 등이며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부터 1년간 답례품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공급업체는 상품 정보 등록, 발주·수령, 배송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투명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기부액 10억 6700만원을 모금해 최상위권에 포함됐다. 이 같은 성과는 다양한 답례품과 철저



나주시 고향사랑 답례품이 기존 34개에서 64개로 대폭 확대됐다.

나주시 제공

한 품질 관리가 비결로 평가 받았다.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나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시민 공감 홍보실 고향사랑팀(061-339-8142)으로 하면 된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나주의 특색을 담은 새로운 답례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답례품 추가 발굴을 통해 나주 특산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 친환경 레몬 첫 수확 장성군, 올해 예상수확량 7톤

장성군이 신소득작물 ‘장성 레몬’ 출하를 공식화했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삼서면 삼계리 농가에서 첫 수확 행사를 가졌다.

레몬은 음료부터 고급요리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이는 아열대과일이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인 등이 풍부하고 비타민C와 항산화성분인 리모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해지는 과일’로 정평나 있다. 신맛이 강하지만 섭취 후 후향액을 알칼리화해 ‘몸에 좋은 알칼리 과일’로도 꼽힌다.

국내에선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해, 국내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레몬에는 방부제와 왁스 처리가 되어 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레몬을 찾는 수요가 꾸준한 상황이다.

장성군은 △2022년 전남도 신소득원에 특화단지 공모 △2023년 전남도농업기술원 ‘맞춤형 미래전략소득작목 육성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어 삼서면 일원에 내륙 최대규모 레몬재배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이상기후 대비 내(耐)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스마트팜 시설 도입,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 구축, 친환경 자체 투입 등 체계적인 지원도 펼쳤다.

그 결과 현재 12농가가 3.9ha 규모로 장성 레몬을 재배 중이다.

올해 예상수확량은 7톤으로 신세계백화점 납품, 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행사, 온라인 직거래, 삼서농협 출하, 레몬 가공품 생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량 소비된다. 수확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100톤까지 수확량을 늘릴 계획이다.

김한중 군수는 “상품성과 경쟁력을 고루 갖춘 장성 레몬이 전남을 대표하는 아열대과일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아열대작물 재배 활성화로 국가 미래농업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함평군 관계자들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주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 함평군,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나비 자전거 교실’

함평군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습관 함양과 함께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 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찾아가는 나비 자전거교실’을 운영했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자전거 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의 4~6학년 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자

전거 점검 방법, 안전장비 착용법, 도로 주행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며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자전거 각 부위를 직접 점검하는 법을 배우고 헬멧과 보호 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또한 교통 상황에서 사용할 수신호를 연습하고,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의 안전한 주행을 체험하는 실습도 진행했

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어린이들이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나비 자전거교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학생들이 안전한 자전거 이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담양군, 백일해 확산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염성 강한 급성 호흡기 질환

담양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백일해 환자 수가 급증하고 지역 청소년 사이에서도 백일해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전파가 가능하다.

주로 콧물과 가벼운 기침 증상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나 최근 확진자들은 전형적인 백일

해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가벼운 기침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20대 이상 성인보다 예방접종이 끝나지 않은 생후 6개월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들에게 주로 발생하므로 총 6회 적기 접종(2개월·4개월·6개월, 15~18개월, 4~6세, 11~12세)을 준수해야 하며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산후조리원 근무자, 교육시설 종사자 등 성인들도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기침 예절 실천(휴지나 옷소매

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적기 예방접종 받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어 백일해가 의심되거나 유증상자와 접촉했을 경우 등교 및 등원을 자제하고 신속히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한다”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발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 운영 곡성군 어린이도서관, 30일부터

곡성군은 연말을 맞아 곡성어린이도서관에서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크리스마스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로 공연, 강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행사로는 △가족 대상 슈퍼거북 유실화 작가와의 만남 △곡성군 아동복지시설 대상 마술책방 공연 △독서 연계 프로그램 ‘이야기 공방’이 운영된다.

유실화 작가의 작품 ‘용기를 내, 비닐장갑!’은 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슈퍼거북, 슈퍼토끼, 장갑 초등학교 시리즈 등 유명 그림책의 저자이다.

오는 30일 운영되는 작가와의 만남에서 유실화 작가가 읽어주는 슈퍼거북, 그림책을 만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작가와 함께 나만의 캐릭터 장갑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독서 마술 공연 마술책방은 ‘문화를 읽는 도서관’의 일환으로 사전 신청한 곡성군 소재 아동복지시설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월6일 펼쳐진다.

독서 연계 프로그램 ‘이야기 공방’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그림책을 같이 읽고 초콜릿·무드등·케이크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구성했다.

이밖에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5면형 가상현실 독서체험 △실감형 동화 체험 4차원 공룡세계 탈출 대작전을 특별 운영하며 △이연주 작가 그림책 ‘산타와 함께 춤을’ 아트프린트 전시 △소원 이루어주는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에 소원 카드를 매달고 도서관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즉석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곡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참고하거나 도서관(061-360-8591)에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명 기자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캠페인 곡성군 곡성읍·석곡면·옥과면

곡성군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의 전통시장에서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했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군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며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와 파쇄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더불어 센터는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산림연접지와 고령층 및 취약계층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고춧대, 깻대, 콩대, 과수전정가지 등 파쇄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결성해 29일까지 고령층과 취약계층 농가를 위주로 영농부산물 파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을 토대로 논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명 기자